

시마다(島田)시 평화도시 선언

「좋은 아침」

「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」

「다녀오겠습니다」

「조심해서 다녀오세요」

아무런지 않은 듯 인사를 주고받는 기쁨

그것은 평화라고 하는 보물

하지만 그것은 다툼이나 재해 같은

많은 고통과 슬픔을 극복한

강함과 부드러움에 의해

쌓아 올려지고 지켜진 것

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은

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평화가 찾아오도록

서로 인정하고 서로 도우며

서로 나눌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여

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

우리들은 호소합니다

「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듭시다」

「생명의 고귀함을 널리 전합시다」

「당신이 있어줘서 고마워요」

그리고 모든 것에 「고마워요」

우리들은 외칩니다

「사람에게 상처주어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필요 없어」

「역사가 길러 준 소중한 재산을 없애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」

우리들은 선언합니다

오오이가와(大井川)의 맑은 강물이 키워 준 초록빛 풍성한 시마다시가

평화를 바라며 세계 속 모든 사람과 함께

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밝은 미래를 목표로

계속 나아가는 평화도시라는 것을